

- 주요 뉴스: 미국 7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는 제한적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 여부 판단은 시기상조
 - 미국 8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2주 연속 증가. 노동시장 과열 완화 시사
 - OPEC,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 경제 성장 둔화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유지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1%],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1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최근 주가 상승이 과도했다는 평가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주 강세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2% 상승, 엔화는 0.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8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06.4원, +3.4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8/11일	8/10일	전일대비			8/11일	8/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207.3	4,210.2	-0.07%	국채 금리 10y	미국	2.89%	2.78%	11bp
	유럽	440.16	439.88	0.06%		독일	0.97%	0.89%	8bp
	중국	3,281.7	3,230.0	1.60%	CDS 5y	한국	35bp	35bp	0bp
	일본	휴장	27,819	-		중국	73bp	73bp	0bp
	한국	2,523.8	2,480.9	1.73%	위험 지표	EMBI+	-	417	-
환율	달러지수	105.12	105.20	-0.08%		VIX	20.20	19.74	2.33%
	유로화	1.0320	1.0299	0.20%		WTI유	94.34	91.93	2.62%
	엔화	133.02	132.89	-0.10%	원자재	구리	370.7	365.0	1.56%
	위안화	6.7448	6.7238	-0.31%		금	1,789.7	1,792.4	-0.15%
	원화	1,303.0	1,310.4	0.5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7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는 제한적

- 7월 생산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9.8%로 전월(11.3%) 및 예상치(10.4%) 대비 하락. 월간 상승률(-0.5%)은 '20년 4월 이후 첫 마이너스. 한편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모두 낮은 수준(8.4%→7.6%, 0.4%→0.2%)
- 이번 결과는 제품부문 특히 휘발유(전월비 -16.7%) 등 에너지 가격의 큰 폭 하락이 주요 원인. 반면 식품(전월비 -0.2%→1.0%)의 경우 상승 전환. 한편 서비스 부문의 경우 상승세가 다소 둔화(전월비 0.3%→0.1%)
-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9월 FOMC에서의 0.50%p 인상 가능성은 소폭 상승(58.0%→61.5%). 2년물(3.22%, +0.4bp) 및 10년물(2.89%, +11bp) 국채금리는 모두 상승했는데, 이는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에 기인
- Oxford Economics의 Mahir Rasheed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 다만 연말까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연준 또한 현행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한편 생산자물가의 상승세는 내년에 대폭 둔화될 것으로 추정
- Citigroup의 Veronica Clark은 금년 하반기의 인플레이션 둔화는 이미 그 동안 예상했던 결과라고 진단. 다만 서비스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강하며, 특히 노동시장의 수급이 여전히 팽팽하다는(tight)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의 성공 여부 판단은 시기상조

- 데일리 총재는 7월 소비자물가의 전월비 상승률 둔화가 긍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지적. 이에 더해 9월 FOMC에서의 0.5%p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이나 0.75%p 인상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

■ 미국 8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2주 연속 증가. 노동시장 과열 완화 시사

- 해당 건수는 26.2만건을 기록해 전주(24.8만건)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 블룸버그의 Eliza Winger는 7월 고용보고서 결과와 달리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증가는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

■ 미국 2/4분기 주택가격, 역대 최고 수준. 향후에는 가격 상승세 둔화될 전망

- 전미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2/4분기 단독주택의 중위가격은 전년동기비 14.2% 상승한 41.3만달러. NAR의 Lawrence Yun은 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

■ 독일 총리, 에너지 위기 대응에 대한 유럽 국가 간 협력을 강조

- 숄츠 총리는 유럽연합이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독일은 역대 최대 경제국으로서 특별한 일을 담당해야한다고 발언. 또한 유럽의 발전 및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 영란은행 총재, 감독당국의 독립성 약화는 금융산업 발전을 방해할 소지

- 베일리 총재는 국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아울러 9월에 금융시장 및 서비스 개혁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첨언

■ OPEC,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 경제 성장 둔화 등을 반영

-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량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일일 336만배럴→336만배럴).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하방 리스크가 이전보다 확대되었다고 설명
- 반면 IEA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과 정유사의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일일 172만배럴→210만배럴). 또한 폭염으로 유럽, 중동의 원유를 이용한 전기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

■ 멕시코 중앙은행, 2회 연속 0.75%p 인상. 향후 인상폭은 경제여건을 반영해 결정

- 성명서를 통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8.50%로 제시하고, 향후 인상폭은 경제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 BofA의 Carlos Capistran는 선제적 지침의 부재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1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및 소비자심리지수, 중국 7월 신규대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기대 보다 빠르지 않을 가능성 - Financial Times**
(Inflation's decline will not be as dramatic as its rise)
 - 상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은 배송비용이나 일부 원자재 가격 등의 하향 안정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위험은 상존. 이는 단기간 내에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통화당국 목표 수준 도달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
 - 높은 임금상승률 외에 그간 가격전가를 하지 못한 공급측면의 상승 압력이 향후 물가흐름의 변수가 될 전망. 이에 통화당국에서 수요를 제어하여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도 강력한 긴축기조가 요구 - WSJ**
(One Good Inflation Report Isn't Enough)
 -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하락. 그러나 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를 크게 상회. 반면 고용증가 및 50년래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고려 시 연준은 2가지 책무 중 하나인 최대고용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
 - 또한 제조업 수주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 및 애틀란타 연은의 GDPNow의 3/4분기 성장률 전망(2.5%) 등은 경기침체 전망과 괴리. 이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고강도 통화긴축을 유지할 필요
- **연준의 통화정책,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블룸버그**
(The Fed's Damage to the Housing Market May Last Years)
-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명확한 대책 부재 등으로 지속될 소지 - WSJ**
(The Bursting Chinese Housing Bubble Compounds Beijing's Economic Woes)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단기 측면에서 물가하락 효과는 제한적 - WSJ**
(The Democrats' Inflation Reduction Act Delusion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